구로오늘신문

극동칼라
02 -855-1484
취업사진 여권 증명사진
가족사진 복원사진
디카 핸드폰사진 즉시가능!

제871호 〔주간〕 〈1994년 10월 5일 창간〉 2021년 5월 20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탄력

안양천 생태초화원서 川공유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 업무협약식

이성 구청장·윤건영 의원 등 단체장, 의원 등 16명 참석
“안양천 종합계획 수립, 국비 등 관련예산 확보 공동 협력”
장미·벚꽃 100리길 조성, 안양천밸트 축제 등 뜻 모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서울권역-경기권역 협약식이 지난 11일 오후 3시 안양천 구로관내 생태초화원에서 안양천 공유 서울(구로·금천·영등포·양천)과 경기(광명·안양·군포·의왕) 8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8개 지자체 대표가 모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행사는 김지혜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의 추진경과 보고 PT 및 동영상 감상에 이어 8명의 국회의원과 8명의 지자체장 인사, 협약서 서명, 생태초화원 라운딩 순서로 1시간 여동안 진행됐다.

구로구는 이번 협약식과 관련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성해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로구는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올해 1월 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 등 4개 자치구와 함께 ‘안양천 명소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경기권역 4개 지자체 실무협의회에 서울 4개 자치구 업무협약을 이끌어낸 이성 구청장이 대표로 참석해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소개하며 사업 범위를 경기까지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지자체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비 예산확보 공동 협력 ▲특정시설의 과다한 중복설치 자제 ▲각종 시설물 공동 이용 ▲장미 및 벚꽃 100리길 조성사업 ▲안양천 산책로, 둔치, 소단길, 자전거도로 등의 연속성 확보 ▲제방, 사면과 둔치 생태 복원 사업 ▲안양천 하천 선형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 ▲하천관리 방안 ▲안양천벨트 축제 및 행사(장미·벚꽃길 걷기행사 등) ▲수질개선 · 생물다양성 등 조사 및 위해식물 제거사업 ▲안양천 야생조류 보호 및 조류독감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면으로 계속〉

〈김유권·채홍길 기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서울-경기권역 협약식이 지난 11일 오후 3시 안양천 구로관내 생태초화원에서 안양천 공유 서울(구로·금천·영등포·양천)과 경기(광명·안양·군포·의왕) 8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구로구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과 관련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성해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를 조성하기 로했다. 〈상공에서 본 생태초화원 등 잘 가꿔진 안양천 일대 모습〉

백신 예방접종 대상 60~74세로 확대

구로 관내 16개洞 위탁 의료기관 66개소 선정

병원 사전 예약후 27일부터 접종

구로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60~74세로 확대한다.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위탁의료기관 66개소에서 사전예약 접종 대상자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위탁의료기관 명단 6면〉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6일 접종 대상자 70~74세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시작으로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와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 2분기 우선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13일부터 예약 신청을 받고있다.

전화 예약은 구로구 사전예약 콜센터(070-4164-2260~2269) 또는 중앙 사전예약 콜센터(1339)를 통해,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사전예약 콜센터 070-4164-2260~2269. 〈채홍길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kabc.or.kr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탄력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서울-경기권역 협약식이 지난 11일 오후 3시 안양천 구로관내 생태초화원에서 안양천 공유 서울(구로 · 금천 · 영등포 · 양천)과 경기(광명 · 안양 · 군포 · 의왕) 8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천 생태초화원에 조성된 보리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부터 이성 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1면에서 계속〉

구로구는 과거 오염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을 생태 하천으로 가꾸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력의 결실 중 단연 눈에 띄는 사업은 안양천 생태초화원을 중심으로 한 하천변 수목원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양천 일대를 수목원 수준의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성 구청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이다.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결과, 갈대와 잡초만 무성했던 공간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생태초화원(1만 7500㎡)으로 탈바꿈했다.

올해도 구로구는 안양교와 광명교 사이 총면적 4000㎡, 총길이 1km 규모의 장미터널을 조성하고 고척스카이돔 전면 하천변 산책로를 따라 총 7500㎡ 규모에 다양한 초화류를 심어 녹색공간을 확충한다.

한편 이날 참석 인사는 이성 구청장 등 8개 지자체장을 비롯, 윤건영(구로을)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임오경(광명갑) 양기대(광명을) 김영주(영등포갑) 최기상(금천) 이용선(양천을) 국회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성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8개 지자체가 연대한 효율적 관리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양천을 하나로 이어 벚꽃·장미 100리길을 조성하고 추후 8개 지자체가 함께 축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권 ·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최숙자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 관련’ 자유발언 〈요지〉

“관내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1,914가구로 폭증 평생 직장생활로 내집 한채 장만한게 무슨 죄냐? 공동주택 공시가 市재조사 협조 및 區자체조사를”

신도림동-구로5동 지역구를 둔 최숙자 의원〈사진〉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5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지난해와 비교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는 19.08%, 서울시 19.91%, 전국 평균 변동률로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로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로구는 22.48%의 변동률로 서울시 자치구 중 8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7년 6.36%, 2018년 6.38%, 2019년 11.49%, 2020년 10.84%와 비교해도 2~4배가량 높다.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 민원이 “공시가가 잘못됐다. 바로 잡아달라. 집 가진 게 죄냐”고 언성 높은 목소리를 듣게 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지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높아진다

108㎡(32평)인 신도림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1월 현재 시세가 11억원에서 1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공시가는 7억3000만원 가량 된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약 200만원이 된다. 근데 작년에는 공시가가 5억8000여 만원 이었고 보유세는 142만원이었다. 내년에는 공시가가 9억2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유세는 275만원으로 높아질것이다. 2020년 142만원 이었던 보유세가 2022년 275만으로 2년만에 133만원이 올라간다.

앞으로 해마다 보유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2%다. 지난해 69%에 비해 1.2% 올랐다. 단 1.2% 올랐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매우 크다.

90%까지면 앞으로 20%가 더 올라가야 한다. 5년 동안 달성하면 해마다 4%, 10년 만에 달성해도 해마다 2%가 인상된다.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해마다 2~4% 공시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거기에 집값까지 올라가면 실제 공시가격의 인상폭은 가파를 수밖에 없다.

실제 90%의 현실화율이 이뤄지면 공시가격 산정 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제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이런 역전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구로구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이었던 공동주택 12만517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11만392호이며 6억 초과 9억원 이하가 8,211호이며 9억원 초과가 1,914호다.

몇 년 전만 해도 구로구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의 공동주택이 없었다. 하지만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았던 구로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행여 종합부동산세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집을 가진 모든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게 될것이다.

주민들 목소리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한 채 마련한 주민들에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내 집값에 대한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도통 알 수가 없다. 한국부동산원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통보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성 구청장께 건의 드린다. 이미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동주택 공시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 재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구로구 자체 조사도 실시하십시요.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타당한지 구 자체적으로 검증해 주시고 올해만 할 게 아니라 해마다 조사를 진행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세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세요.

부동산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지난 4·7 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다.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하며 집값 안정과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책 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요지〉

구로구청 개방형직위 ‘감사실장’ 공채

구로구가 개방형직위인 구청 감사실장을 공개 채용한다.

구는 지난 4월 28일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원서 접수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6월1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일 2차 면접심사, 9일 면접합격자를 발표한다. 임용 예정일은 오는 7월1일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감사실장 직위는 임기제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실장 직무는 △구청 비위사건 및 지시사항 조사.처리 △공직기강 및 청렴시책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 사항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총무과(3층) 860-3310로 문의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 행 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구 독 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국내 '1인 가구' 39.2%… 20~30대가 35%

구로구도 18만여 세대중 6만9천 세대로 38.2%
청장년층은 비혼·이혼, 노년층은 고령화로 홀몸
청년 '1인가구' 증가는 결혼 포기 '저출산 문제'로

뉴스 분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말 기준 1인 가구는 906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9.2%를 차지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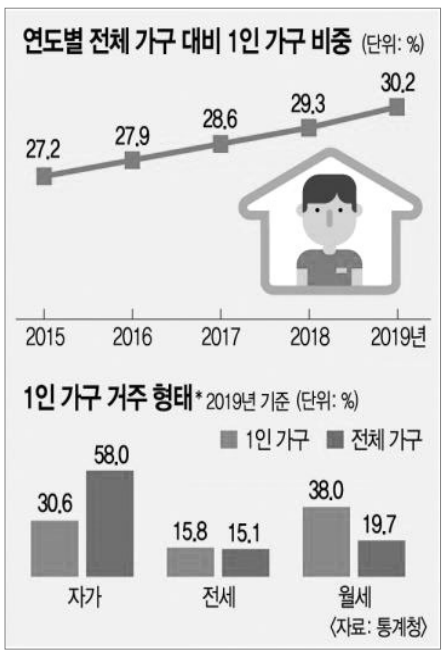
이는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이다. 1인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1인가구 중 20대가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16.8%, 50대 16.3%, 60대15.2% 순이다.

성별과 연령 기준으로 보면 남녀 모두 20대의 1인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다. 남성의 경우 30~50대, 여성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1인가구 비중이 높다.

구로구 관내는 총 18만42세대(2021년 4월말 현재) 중 1인 가구가 68,812세대로 전체가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인 가구 비중증가 기여도에 따르면 노년층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를, 청장년층은 만혼, 비혼, 이혼 등의 인구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들이 가진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층은 실업율, 중장년층은 실직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 노년층은 빈곤, 고독, 질병의 문제를 꼽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말 기준 1인 가구는 906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9.2%를 차지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전체 1인가구 중 20대가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16.8%로, 20~30대가 35%를 차지하고 있다.



■ 독립성 강하면 30대 이전 세대 꾸려

지난 1월 오류동에 사는 김규호(30)씨는 작정하고 짐을 쌌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부모님 집에서 나와 그가 고른 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는 한 오피스텔. 부동산 발품을 팔아 미리 '찜'을 해놨던 집이다. 빠듯한 재정 상황이지만 '무리'를 했다. 이곳을 별렀던 이유는 단 하나. 거실에서 탁 트인 공원을 볼 수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 남들에겐 호사스런 소리로 들릴까 싶지만 속으로 몇번씩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는 '린더'란 일정정보 플랫폼을 만든 스타트업 히든트랙을 이끌고 있다. 최근엔 심리상담 비즈니스를 기획 중이다. 코로나19는 그의 삶을 바꿔놨다. 집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서다. 집이자 일터인 유일한 공간에서만이라도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다고 했다. 김 씨는 대학에 들어가며 독립과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했다. 고시텔, 하숙집, 셰어하우스에서 살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독립 선언을 했다. 그는 "임대료를 아껴서 집을 마련하는데 투자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당장의 심리적인 안정과 내 공간, 내 시간이 필요해 독립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세대는 막연하게 독립하고 싶어하는 세대인 것도 같다"며 "경제적인 상황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독립을 하지 못할 뿐 독립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 정서독립 '나홀로 가족' 선택

올해 1년차 무주택 세대주인 변모(28·구로 1동)씨는 '정서독립'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을 맞출 필요 없이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다"며 "가족과의 트러블 등에서 벗어나거나 정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했다. 정서독립에 성공하자 또다른 관심거리가 생겨났다. 바로 집이다. 그는 "자가 마련을 위해 투자 연습 중"이라며 "주택 관련 정책을 알아보거나 주식투자를 하고, 정부가 내놓은 취준생,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전세대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있으면 외로움 없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독립선언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에 따라 독립을 했던 것과도 전혀 딴판이다. 직장인 차영훈(27·고척동)씨는 4년 전 어엿한 '세대주'가 됐다. 서울 강남에 일터와 고척동에 있는 집을 오가려면 3시간이 걸리지만 단호하게 독립을 결심했다. 그는 "반려묘를 키우는데 가족과 '양육 방식'이 달라 고양이를 잃어버릴뻔 하면서 독립 생각이 굳어졌다"고 했다.

'무주택 1인 세대주로 살면 주택청약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독립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차씨는 "가족과 살던 집에서 그간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모와의 스몰토크,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을 공유하는 것들에서 독립하고 싶었다"고 했다.

■ 일자리 찾아 독립 나서

일자리를 위해 독립을 하는 1인세대는 여전히 많다. 제주도가 고향인 오모(27·구로동)씨는 올해 8년째 홀로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 대학 입학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다 자취로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독립을 '수단적 독립'이라고 칭했다. 한 달에 120만원씩 생활비가 들지만, 서울에서의 취업 기회가 지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여겨서다. 오씨는 "스스로 세대주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받곤 '아, 내가 세대주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1인세대 10만 '싱글도시' 급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인세대만 중소도시 규모인 10만명이 넘는 '싱글들의 도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1인세대가 10만이 넘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서울 관악구 등 8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 뒤인 2020년엔 15곳으로 불어났다. 도시개발 등 여파로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천안시 등의 1인세대가 10만을 넘겼고, 서울에선 강서구와 송파구가 신규 '싱글도시'에 합류했다.

전국 싱글도시 중 1인세대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19만2488명)다. 이어 서울 관악구(16만288명)와 경기도 성남시(15만4631명) 등에도 15만명이 넘는 1인세대가 산다. 수원에서도 가장 많은 1인세대가 몰려있는 곳은 팔달구 인계동(1만2069명)으로 전체 세대의 57.2%가 1인세대다. 인계동은 수원시청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의 교통 요충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병원 등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원룸 등 1인가구에 적합한 주거형태가 많아 1인세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1인가구 시장' 가파른 증가세

1인 가구가 증가에 따라 '1인가구 시장'이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소가전업체들이 최근 국내에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적은 용량에 크기를 줄인 가전을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가 최근 배수 걱정 없이 전기코드만 꽂으면 어디든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건조기 '청호 살균 미니건조기'를 출시했다.

특히 건조용량 표준 2.5kg(최대 3.0kg)인 청호 살균 미니건조기는 빨래 양이 많지 않은 1인가구 등에 적합하다. 청호 살균 미니건조기는 'PTC' 히터를 적용해 옷감 손상 없는 빠른 건조가 가능하다. 세탁만으로 제거가 힘든 옷 속 유해 세균은 UV(자외선) 램프를 통해 살균해준다. 건조기 작동은 △표준 △소량 △탈취건조 △자연풍 모드로 구성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소형 가전 제품군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루컴즈전자는 최근 12kg 용량 전자동 '통돌이 세탁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1~2인가구를 위한 실속형 세탁기다. 입체 물살로 의류 손상을 줄이는 한편, 세정 능력은 강화했다. 여기에 주된 세탁기 고장 원인 중 하나인 세탁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탁조 자종 균형 장치를 적용했다.

■ '나홀로 가족' 문제점도 많아

취업난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2030 청년층은 내 집 마련,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결혼 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1인가구를 가정의 한 형태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 이로인해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혼율 또한 증가하면서 1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 젊은 층의 결혼 가치관의 변화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YOLO(욜로) 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미래를 위해 내 집 마련, 결혼, 노후준비에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에따른 가족가치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만수 기자〉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 개최

조윤장 새 이사장 13일 취임… 각계 인사 80여명 참석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이 · 취임식이 지난 13일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희망복지재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속 진행됐다. 참석 인사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13일 오후 2시 구로5동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희망복지재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속 조촐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윤웅찬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과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오승주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이임 이형춘 이사장 약력 업적 소개, 이임사, 꽃다발-기념품 증정에 이어 새로 취임하는 조윤장 이사장 약력 소개, 이성 구청장 축사,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김재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구로을 당협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윤장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이임 하시는 이형춘 이사장님은 지난 6년간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 주신분, 정말 감사 드린다"고 인사하고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만, 선량한 마음으로 모아진 기부금의 일만원이 많은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기업의 관리 체계를 접목시켜, 조성된 기금이 공익적 목적에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또 "재단을 더욱 활성화 시켜, 조금 더 미래지향적

조윤장 신임 이사장(오른쪽)이 이임하는 이형춘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청소년이 건강히 성장 할수 있도록 도움되는 사업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심리불안정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심리상담 지원 같은 구체적 사업을 모색하겠다"며 제게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꼭 부탁 드린다"며 취임사를 마쳤다.

이어 꽃다발 증정과 이임 이사장에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단체 기념촬영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한 제5대 조윤장 이사장(66세)은 현재 국내 금형산업 32년을 선도하고 있고 있는 ㈜삼우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2012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지난 5월6일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기도 한 중견기업인이다.

한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2009년 3월 재단설립을 설립, 같은 해 7월 이사 7명 감사 2명 사무국직원 4명으로 첫 발을 내딛고 1-2대 이사장으로 구로성심병원장이던 고(故) 박선효 원장이 2015년 3월까지 6년간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어 이형춘 3-4대 이사장이 지난 6년간 재단의 자립기반 확충 등 업적을 남겼다.

재단 출범시 20억원 이던 기본재산은 올해 5월 현재 49억 8천만원으로 늘어 났고, 기부금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33억원이 됐으며 정기후원자는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참석 인사는 위에 언급한 내빈들 외 서울시의회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인홍-이호대 시의원과 구로구의회 곽윤희 부의장, 김철수 운영위원장,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 서호연 예결위원장, 노경숙 안전관리위원장과 이계명 구로문화원장, 김한기 서울구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장과 송희순-김현숙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 10여명, 최동욱 전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7일 가리봉동에 위치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장애인단체연합회 임원진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구로구의회 박동웅의장,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7일, 가리봉동에 위치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장애인단체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준식 구로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이종웅 지체장애인협회구로지회장, 정병호 장애인소상공인협회구로지회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을 만나 당면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로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사무실은 옛 가리봉1동 주민센터(디지털로19길 24)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층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상담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로 사용하고, 2층은 서울신체장애인복지회구로구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 등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6개 단체가 사용 중이다.

박의장은 시설 곳곳을 세심히 돌아본 후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고, 간담회 참석자들과 시설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 대표들은 열악한 사무실의 생활환경을 집중 거론하면서 사무실 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주차공간 확보, 장애인 쉼터 신설 등 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박동웅 의장은 사무실 환경개선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전하며, 향후 장애인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박의장은 "장애인 권익증진과 장애인단체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연합회 사무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구청과 면면히 검토하여 편의시설 확충, 이동 편익 보장, 사무실 내부 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장애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내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장애인 정책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 과태료 금액 : 승용차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서울구로구청장 · 서울구로경찰서장

구로희망복지재단 Guro hope welfare foundation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월 가정의 달 관내 '나눔의 情' 잇따라

카네이션·아동 내의·장난감·압력밥솥·여름이불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이 전해지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 6일 KB증권의 기부로 폐지수집 어르신 100명에게 카네이션 화분, KF94 마스크, 영양제 2종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4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내의 전달식이 ㈜경원에프엔비 구경본 대표, ㈜어떠카지 정라이 대표, ㈜함께하는세상 이헌수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경원에프엔비(대표 구경본)가 기부한 내의 2,002벌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에 배분됐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구로관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수 전무, 구경본 대표, 이성 구청장, 정라이 대표〉

동별로도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 6일 고척2동은 고척2동새마을금고(이사장 석용식)의 후원을 받아 홀몸어르신 30가구를 대상으로 고척2동자원봉사협력단(단장 윤호)은 전통장과 국수세트를, 고척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숙)는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했다.

고척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숙)가 지난달 20일에는 30명의 홀몸어르신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렸다.

이달 6일에는 고척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창호)가 저소득 가정 홀몸어르신 30가구에게 여름이불을 전달해드렸다.

같은 날 구로5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덕)는 홀몸어르신 등 10가구를 대상으로 압력밥솥을 전달했다.

구로3동은 6일 구로3동자원봉사협력단(단장 장필주)이 저소득 가정 어르신 70가구에게 갈비탕을, 3일 구로3동자원봉사캠프(캠프장 박성희)가 5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간식, 장난감, 가방 등이 담긴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6일 구로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우), 통장협의회(회장 구승자),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임경화) 등 구로1동의 직능단체가 연합해 80가구의 저소득 가정 홀몸어르신에게 열무김치를 전했다.

구로1동적십자봉사회(회장 최현숙)는 지난달 27일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게 백미 5kg씩을 지원했다.

이달 3일 어린이날을 맞아 구로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우기)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아동, 청소년 20명에게 장난감, 문구세트 등 연령대별 맞춤형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오류2동자원봉사캠프(캠프장 김의순)는 지난달 30일 98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 손소독제, 생필품 등으로 이뤄진 선물세트를 후원했다.

지난달 22일 구로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차정회)가 저소득 가정 70가구에게 겉절이를 전달했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 있는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효자(孝子)에 대하여 ㊤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전에 어린이 달이자 효(孝)의 달이다. 요즈음은 효자(孝子)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면 착하고, 순한 아이다. 혹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니라는 말로 효자, 효녀를 대신한다.

물론 지금도 자치단체나 나라에서 효자, 효녀를 선발해서 상장을 주는 등 효를 장려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제가 발달되고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효(孝)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하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좁게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자관계를 지배하는 행위규범은 효(孝) 또는 효도(孝道)로 집약될 수 있다.

이 효에 기초한 부자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태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자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를 배우고 몸에 익힌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한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식에 대한 엄격한 훈육을 담당할 지배적인 인물로 모시고 섬길 것이 요구되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인자하고 너그럽고 별로 무서워할 것이 없는 모성상(母性像)이 어려서부터 심어진다.

이런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친족호칭(親族呼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기는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엄친(嚴親)·가엄(家嚴) 등과 같은 '엄격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자주(慈主)·자친(慈親)·자위(慈闈)·자정(慈庭)·노자(老慈)·자당(慈堂)·선자(先慈)·선자당(先慈堂) 등과 같은 부드럽고 인자하고도 자상한 이미지가 부각된 용어로 호칭했다.

〈본지 회장〉

'드림스타트 아동' 집으로 '선물 드림'

가정의 달 195가구에 쿠키, 미술용품 등 선물 배달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선물꾸러미와 방역서비스를 지원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구로구는 택배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195가구에 각종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달 10일 쿠키세트를 시작으로 패브릭 마카, 에코백 등의 미술용품과 밀키트를 10~21일 2주에 걸쳐 제공한다.

한편 3, 4월 2달에 걸쳐 제공한 방역서비스는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방역업체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해충과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기 쉬운 30가구에 각 2회씩 방역을 실시했다.

구로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을 대상으로 선물꾸러미와 방역서비스를 지원했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위축된 취약계층에게 이번 지원이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토지등소유자 소재 및 불명자 확인의 건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아래 불명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공고입니다.
2. 당 추진위원회는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2009년 6월부터 2021년 3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하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하여 등기를 발송하였으나 등기가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될 뿐 아니라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귀하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귀하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민번호가 없거나 주민번호는 있으나 등기부상 주소지와 현재의 주소지가 명백히 다릅니다. 또한, 귀하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귀하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1041)에 따라 최종적으로 귀하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를 발송하였습니다.
3. 당 추진위원회는 등기 발송 외에도 도시정비법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고 사업장내에 벽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게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등기를 수령하거나 사업장내 벽보나 일간신문을 통해 귀하가 당 사업장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아래 당 추진위원회의 소재지로 내방하거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아니어도 상속인이거나 토지등소유자의 생존 여부 및 연락처를 아시는 분께서도 당 추진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5. 끝으로 2021년 5월 20일까지 어떠한 회신도 없을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및 도시정비법 제71조에 따라 귀하를 당 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할 것이며 귀하 소유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 동아1차아파트 상가 207호
연락처 : 02-2068-0014, 010-8073-0041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 소재 불명자 명단 -

연 번	성 명	소유지번	비고(공유 등)
1	제일냉동㈜	271-016	단독(토지)
2	박해선	291-065 외 2필지	단독(토지)
3	최미옥	292-012	단독(토지)
4	이경태	292-015	단독(토지)
5	이명운	292-147 외 1필지	단독(토지)
6	이강욱	292-238	공유(토지)
7	이석도	292-238	공유(토지)
8	임경빈	292-238	공유(토지)
9	고부석	292-238	공유(토지)
10	김 만	292-238	공유(토지)
11	김성만	292-238	공유(토지)
12	김시찬	292-238	공유(토지)
13	김영희(A)	292-238	공유(토지)
14	김운덕	292-238	공유(토지)
15	김은섭	292-238	공유(토지)
16	김종국	292-238	공유(토지)
17	김형실	292-238	공유(토지)
18	박성철	292-238	공유(토지)
19	박승보	292-238	공유(토지)
20	안광모	292-238	공유(토지)
21	이강숙	292-238	공유(토지)
22	이우현	292-238	공유(토지)
23	이효능	292-238	공유(토지)
24	정일룡	292-238	공유(토지)
25	하명도	292-238	공유(토지)
26	노사덕	293-129	공유(토지)
27	송재설	293-129	공유(토지)
28	현태호	293-129	공유(토지)
29	김복선	293-129	공유(토지)
30	김옥희	293-129	공유(토지)
31	정광조	293-129	공유(토지)
32	조이현	293-129	공유(토지)
33	최무영	293-129	공유(토지)
34	백여봉	293-139	공유(토지)
35	김삼희	293-139	공유(토지)
36	김연순	293-139	공유(토지)
37	박이학	293-139	공유(토지)
38	신보우	293-139	공유(토지)
39	이기태	293-139	공유(토지)
40	이채률	293-139	공유(토지)
41	조주연	293-139	공유(토지)
42	박희면	296-007	단독(건축물)
43	이성남	394-053	공유(토지)
44	이지숙	394-053	공유(토지)
45	최순향	394-053	공유(토지)
46	이종모	396-013	단독(토지)
47	이경채	396-018	단독(토지)
48	유정실	396-029	단독(토지)
49	이인한	396-041	단독(토지)
50	박외선	396-055	단독(토지)
51	박영근(A)	396-091	단독(토지)
52	문종식	396-097	단독(토지)
53	전규채	396-117	단독(토지)
54	서북례	396-164	공유(토지)
55	함정애	416-041	공유(토지)
56	고효숙	276-068	단독(토지)
57	박현순	293-073	단독(토지, 건축물)

G밸리 기업 고용환경 개선 '팔 걷었다'

공인노무사가 기업 분석 1대1 맞춤 상담 제공 '고용 컨설팅' 실시

온·오프라인 'G밸리 일자리 공유 플랫폼' 운영… 일자리 정보 제공

구로구가 G밸리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에 나선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밸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IT·SW 분야 등 G밸리 소재 50여 개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먼저 '고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고용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기업별 기초현황과 설문자료 등을 분석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은 ▲유연근무제도, 임금처리 방안 등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방법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등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9월 말까지 'G밸리 일자리 공유 플랫폼(www.gj.n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G밸리 특화 직장내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직무숙달을 위한 상담과 워크숍을 통해 전문기술 부족 또는 잦은 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도 구로구는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오리로 1130) 내에 'G밸리 일자리 매칭센터' 공간을 마련해 온·오프라인으로 'G밸리 일자리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지원정책, 취·창업 정보 등 구직자의 일자리 정보와 기업 고용지원책을 제공한다.

한편 구로구는 정부, 지자체, G밸리 유관기관 등 18개 기관이 협력해 일자리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G밸리 일자리 창출 협력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말에는 G밸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성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강월명 일자리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G밸리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융합기술진흥원(이메일: q@ct.or.kr) 867-2011.

〈채홍길 기자〉

'건강챌린지' 프로그램 참여자 300명 모집

운동 영상 제공·식단 피드백·1대1 상담 등

구로구가 '건강챌린지' 프로그램 참여자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챌린지' 프로그램 참여자 3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구로구는 대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이버 밴드 'G밸리보건지소-건강에브리데이'를 통해 운동 영상, 영양 정보 등을 5~7월 3개월 동안 주 1회씩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대1 맞춤형 상담도 실시한다. 'G밸리보건지소' 카카오톡 채널로 식단 피드백, 영양상담 등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서는 맞춤형 운동법, 올바른 운동 자세 등을 지도해준다. 단, 줌을 통한 상담은 사전예약 필수다.

참여자의 G밸리보건지소 방문으로 진행되는 건강평가와 상담은 인바디 측정,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다.

5, 7월 각각 1번씩 실시하며 5월에는 프로그램 참여 안내, 개인별 맞춤 식단과 운동 방법 제공, 7월에는 건강상태 변화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체지방 감소율이 높거나 근육 증가량이 많은 참여자, 참여 후기를 작성한 참가자 중 우수 후기자 등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누구나 6월 11일까지 전화(860-8173, 8174)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한 뒤 날짜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860-8173, 8174.

〈김유권 기자〉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 "소재불명자 확인 중"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는 신도림 293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 주체로서 최근 신도림 사업구역 내 소재불명자의 생존여부와 소재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재 및 불명자 명단 5면〉

한복순위원장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에는 현재 57명(공유자 포함)이 소재불명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동안 추진위원회는 2009년 6월부터 2021년 3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하여 등기를 발송하고 홍보요원을 파견하였으나 소재불명자들의 경우에는 등기가 반송될 뿐 아니라 등기부상에 주민번호가 없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불명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내 생존여부와 소재지를 확인 중이며 도시정비법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고 사업장 내에 벽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는 구로구청에 소재불명자의 지방세 납부 사실의 조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조회 결과에 따라 소재불명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우리동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병원

구로구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60~74세로 확대하고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위탁의료기관 66개소에서 사전예약 접종 대상자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신도림동(5개소)

△마디튼튼류마내과의원(2068-6641) △아이온소아청소년과의원(3439-7588) △연세봉봉소아청소년과의원(848-7297) △연세푸른이비인후과의원(2636-7550) △조은의원(2636-7550)

□ 구로1동(1개소)

△장준호의원(830-8575)

□ 구로2동(8개소)

△고대 구로병원(2626-1114) △건강세상의원(3281-8285) △구로성모의원(853-7005) △구로중앙외과의원(857-1189) △구로현대의원(864-2559) △마음속내과의원(0507-1369-5999) △정재면내과의원(2675-0876) △조이비인후과의원(855-7767)

□ 구로3동(3개소)

△S아이니의원(0507-1310-8812) △서울시원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1600-0075) △참튼튼병원(1899-3620)

□ 구로4동(4개소)

△구로연세의원(858-7776)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865-5050) △연세의원(838-6421) △서울삼성내과의원(854-3181)

□ 구로5동(7개소)

△아름제일병원(855-9911) △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838-2233) △신도림하나이비인후과의원(859-5011) △애경내과의원(0507-1441-2115) △우리아이들병원(0507-1320-0102) △우리의원(867-8811) △태영성모의원(858-7661)

□ 가리봉동(2개소)

△가리봉의원(851-1666) △협동의원(855-5050)

□ 고척1동(3개소)

△구로성심병원(2067-1500) △고려센트럴재활의학과의원(0507-1466-0043) △강내과의원(2686-7835)

□ 고척2동(3개소)

△김진아소아과의원(2616-4119) △본내과의원(2682-3303) △임혜라소아청소년과의원(2683-7761)

□ 개봉1동(4개소)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2619-3119) △한길의원(2617-8887) △이연합의원(2689-8026) △열린연세정형외과의원(2617-8222)

□ 개봉2동(6개소)

△맑은성모이비인후과의원(2611-5566) △강서내과의원(2615-7212) △별소아청소년과의원(2066-1611) △삼성정형외과의원(2618-6611) △서울오케이내과의원(6956-7588) △연세수이비인후과의원(2613-0075)

□ 개봉3동(3개소)

△굿모닝의원(2066-7588) △박철수내과의원(2681-7575) △성신가정의학과의원(2688-6411)

□ 오류1동(4개소)

△남광우내과의원(2617-1025) △구로센트럴이비인후과의원(0507-1342-8321) △문희식내과의원(2612-2730) △한양정형외과내과의원(2687-1321)

□ 오류2동(6개소)

△삼성미래여성병원(2682-2100) △베일리이비인후과의원(2020-1525) △삼상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2681-3311) △송기산내과의원(2617-7538) △연세연합의원(2685-0075) △한사랑가정의원(2686-4884)

□ 수궁동(4개소)

△성재의원(2625-7533) △동진가정의학과의원(2617-4527) △연세필의원(2619-3130) △온수의원(2688-5575)

□ 항동(3개소)

△동그라미소아청소년과의원(2038-8610) △서울푸른숲내과의원(0507-1420-7000) △항동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2066-7566

구로 '안전속도 5030' 주민 홍보 강화

'안전속도 5030' 따라 관내 도로 89.3km 노면 표지, 교통표지판 등 교체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승용차 8→12만원, 승합차 9→13만원

구로구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17일부터 정부 차원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정책이다.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종전 60km/h에서 50km/h로 줄어들었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등은 제한속도 30km/h가 적용된다.

구로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구가 관리하는 주요도로 89.3km 구간을 대상으로 노면 표지와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했다. 또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물도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인상조치도 시행됐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만원씩 인상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정부 차원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어 구로구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구는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속 구역 내 설치된 고정형·주행형 CCTV를 통해 단속 대상 차량을 촬영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촬영 시점에서 10분이 경과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경우 단속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코너로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차관리과(860-318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소식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미취업청년·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미취업청년 19~34세 대상 구로사랑상품권 지급

폐업 소상공인 업종별 담당 부서 방문-우편 신청

구로구가 미취업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6월 11일까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7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5월 2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860-3447, 3462. 폐업 소상공인 지원 860-3409. 〈채홍길 기자〉

관내 확진자 일주일새 50여명 급증

17일 현재 누적 1,406명… 사망자는 11명 그대로

서울 확진자 4만1,238명-사망자 472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다시 폭증세로 돌아서며 누적 1천1,406명이 됐다.

17일 현재 확진자는 일주일 전에 비해 50여명이 급증했고,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11명이며 1,296명이 완치 퇴원, 99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402명, 해외입국자 372명 등 모두 774명이다.

신규확진자 감염경로는 가족간 감염, 타지역 확진자 접촉, 관내 기확진자 접촉 등이다. 또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 발생이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짐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854명, 해외 입국 13명, 기타(조사중) 36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7일 현재 모두 4만1,238명으로 사망자는 472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은 2,332명 ▲강남구 2,235명 ▲강서구 2,098명 ▲관악구 1,946명 ▲노원구 1,880명 ▲중랑구 1,850명 ▲은평구 1,844명 ▲서초구 1,738명 ▲동작구 1,743명 ▲성북구 1,721명 ▲강동구 1,576명 ▲동대문구 1,547명 ▲영등포구 1,515명 ▲양천구 1,478명 ▲구로구 1,406명 ▲광진구 1,333명 ▲도봉구 1,323명 ▲마포구 1,297명 ▲강북구 1,155명 ▲성동구 1,126명 ▲용산구 1,077명으로 21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서대문구 998명 ▲종로구 724명 ▲금천구 643명 ▲중구 635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민방위교육훈련'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6월 30일까지 교육 1시간 시청 후 70점 이상이면 수료

구로구가 민방위 교육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민방위대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기본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www.cmes.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을 시청 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이수 처리된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수강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헌혈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을 제출해도 민방위 교육훈련 이수가 인정된다.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김유권 기자〉

고척2동 주민센터 공무원 1명 확진

洞청사 하루 폐쇄, 밀접접촉 직원 5명 2주 자가격리

고척2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구청 방역당국은 즉시 동청사 방역과 함께 당일 하루 폐쇄했다.

동 관계자는 "지난 3일 공무원 A(40대 여성)씨의 가족이 증상 발현 되면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가 6일 검사를 받고 7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30여명 전원이 선제검사를 받은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5명에 대해선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3건에 3명이다. 치수과와 스마트도시과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확진 됐었다. 〈채홍길 기자〉

'오존 경보 상황실' 10월15일까지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구로구가 오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한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연소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가 태양광선과 섞여 생성되는 환경오염물질로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존 경보 상황실은 서울시 오존 경보 발령이 주의보 이상인 경우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3710개 시설에 팩스, SMS 등을 통해 오염 상황과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에 대비해 10월 15일까지 매일 운영된다.

한편 구로구는 오존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한만수 기자〉

체험형 전시회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개최중

갤러리 구루지서 28일까지 … 관람 5일전 사전 온라인 접수

구로구가 지난 5일부터 28일까지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전시회를 개최중이다.

구로구는 "이번 전시회는 서울시와 문체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며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김계현 작가의 케플블록 작품을 관람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로구가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구로구민회관 1층 갤러리 구루지에서 'Block,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다' 전시회를 개최중이다.

전시장에는 김계현 작가의 케플블록을 활용한 전시작품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계현 작가의 작품은 블록의 '장벽' 혹은 '막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장난감으로 여겨졌던 블록을 통해 사람과 공간을 새롭게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작품 감상 후 블록 체험키트를 직접 조립해 일상의 사물이 예술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 '오늘은 나도 조립예술가'도 병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일 7회,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주민, 직장인 등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순수문예지 '문학광장' 88호 발간

'이달의 시인' '신작시' '신작 수필' '신작 소설' 과 신인문학상 시-소설 당선작, 심사평·소감 등 실려

구로구 관내 순수 문학잡지인 격월간 '문학광장'(발행인 김옥자)이 최근 2021년 5-6월호인 통권 제88호를 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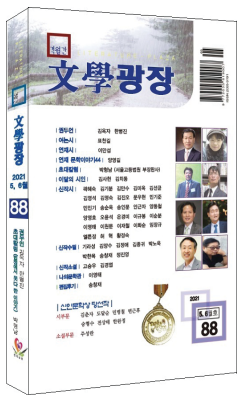
이번 88호에는 김옥자 발행인의 '작은 선물, 소확행의 시작점'와 한병진 문학광장 카페운영위원장의 '생명이 있는곳은 어디든 詩가 있다'란 제목으로 권두언이 실렸다.

5-6월 여는시는 표천길 시인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연재시엔 이만섭 시인의 '꽃보러 왔다' 외 2편이 게재됐다.

'초대칼럼'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가 실렸고, '이달의 시인'에는 김사헌 시인의 '민둘레의 꿈'외 4편과 김치동 시인의 '봄동'외 4편이 게재됐다.

신작詩로는 곽혜숙, 김만수, 김선균, 김영숙, 문우현, 송순옥, 임영호, 이규봉, 이재철, 이화순, 엘튼정, 허혁 시인 등 28명 회원들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 됐다.

또 신작수필엔 기라성, 김종귀, 송창재, 정진영 수필가 등 8인의 작품이 실렸고, 신작 소설에는 김경업 작가의 '바퀴가 고장난 휠체어'와 고승우 작가의 '그와 그녀'가 실렸고, 신작동화엔 김동미 작가의 '봄날의 제비'가 게재됐다.



또 한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시부문에 김춘자씨의 '디림질'외 2편, 도달순씨의 '오늘은'외 2편, 민병철씨의 '가뭄'외 2편, 변근후의 '치매'외 2편, 승형수씨의 '미래의 여인'외 2편, 전상태씨의 '고향'외 2편, 한완정의 '소녀 나무 그리고 나'외 2편이 실렸다.

또 소설부문에는 주성란씨의 '삭제되었습니다'의 작품 및 당선소감, 그리고 심사평이 자세하게 실렸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53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작〉

무명(無明) 길

시인 이 태 수

산 넘으면 산이,
강을 건너면 강이 기다린다
안개 마을 지나면 또 안개 마을이,
악몽 벗어나면 또 다른 악몽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잠자도 깨어나도 산 첩첩 물 중중,
아무리 가도 제자리걸음이다

눈을 들면 먼 허공,

그래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
안개 헤치며 마을을 지나 마을로
악몽을 떨치면서 걸어간다

- 1974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자유시〉동인으로 활동.
- 시집 『그림자의 그늘』『우울한 비상(飛翔)의 꿈』『물속의 푸른 방』『안 보이는 너의 손바닥 위에』『꿈속의 사닥다리』『그의 집은 둥글다』『안동 시편』『내 마음의 풍란』『이슬방 울 또는 얼음꽃』『침묵의 결』『따뜻한 적막』『내가 나에게』『유리창 이쪽』 등 다수.

외국인주민 위한 '구로생활안내' 책자 발간

구로구가 외국인주민을 위한 '구로생활안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구로생활안내'는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각종 생활·행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는 ▲구로구 소개 및 생활·문화시설 정보 ▲다문화가정·외국인 지원서비스 ▲건강·의료, 출산·보육, 교육·복지, 취업·안전, 생활·법률 등 각 분야별 정보 ▲구로구 주요 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정리돼 있다.

구로구는 구청과 관내 동주민센터 민원실, 외국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구로생활안내'를 총 1000권 배부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도 게시했다.

〈한만수 기자〉

문학이라 읽고, 문예라 쓴다.

❖ 일기쓰기 지도 방법
❖ 어린이시(동시)쓰기 지도방법
❖ 마법의 글짓기 교실 지도방법
❖ 마법의 시창작
❖ 마법의 소설창작
❖ 수필창작
❖ 문예이론

왜 글짓기를 못할까?
글짓기를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학교는 없다

일기 쓰기 지도부터
프로 시인. 작가가 될 수 있는 지침서!

585쪽/ 가격 45,000원/한국문예창작진흥원

❖ 장편소설/ 자서전 6개월 완성(초보자 기준) 02-2636-3765